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결과

- ◇ 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개최)
- ◇ 주요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12명)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 ◇ 논의 안건
 -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과제

1. 개 요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산업·혁신분과는 전체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개 분과* 중 하나로,
 - * 정책·글로벌 / 산업·혁신 / 자본시장 / 금융소비자·서민금융
- 금융산업 발전·디지털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
- 1.26일 산업·혁신분과 회의는 「2021 금발심」 출범(1.14일)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분과회의로서,
 - 지난 전체회의(1.21일)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전체 위원들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데 이어,
 - 업무계획 과제 중 ①금융산업 발전 ②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 주요 논의 사항

※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논의사항 위주로 설명
 (“금융산업 발전” 관련사항은 2.2일 브리핑시 설명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들은,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음

❶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와 관련, 플랫폼의 혁신 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성 제기

- 플랫폼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혁신적 서비스가 기대(금융부문의 “아마존”)되는 만큼, 적극적 제도개선 주문
- 한편,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자칫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❷ 금융부문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율(「금융부문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마련이 중요
- 인공지능 기능수행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킬수 있는지 관점(“resilience”)의 제도설계도 필요

❸ 망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되 금융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방안마련 필요

-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
- 다만,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고려 필요

□ 다양한 새로운 시각 제시와 정책제언도 이루어졌음

- ①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을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 활용 필요
- ② IT 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을 설명

- ①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 ②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 ③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 ④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 ⑤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운영 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3. 향후 계획

□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지속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소통의 場”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성 명	현 직 위	비 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